새 책

▶여행을 기억하다(배중열·고을 지음)=제주가 좋아 제주를 여행하다가 제주에 정착하게 된 일러스트레이터 부부가 이번엔 치앙마이가 좋아 치앙마이를 여행하다가 보름살기, 한달살기를 하면서 기록했던 그림일기를 책으로 엮었다. 치앙마이의 골목들, 사람들, 소소하게 엮은 에피소드를 자신만의 글투와 그림체로 담았다. 재승출판. 1만6000원.

▶말은 행동을 만든다(이성민 지음)=KBS 아나운서 이성민 박사의 두번째 '톡팁스(말의 요령)'다. 행동을 만드는 말의 중요성을 다룬 책으로, 저자는 영화배우, 영화감독, 가수, 탤런트, 소설가, 작곡가, 야구선수, 축구선수, MC 등등 유명인들의 말을 분석 정리했다. 나무와열매. 1만5000원.

▶존재권력(브라이언 마수미 지음, 최성희·김지영 옮김)=저자가 '존재권력'이라고 부르는 오늘날의 새로운 권력의 작동에서는 '선제'가 핵심이다. 저자는 오늘날 전쟁 교전뿐 아니라 현재 우리의 신자유주의 조건에 스며든 공포와 불안의 문화를 설명하는 독창적인 이론을 제공한다. 갈무리. 2만2000원.

▶폐허 속의 신(케이트 앳킨슨 지음, 우진하 옮김)=전작 '라이프 애프터 라이프'는 어설라 토드가 런던 대공습 기간 동안 겪었던 일에 대한 내용이다. 전작의 '자매편'에 해당하는 이 책은 어설라의 남동생 테디와 영국 공군 폭격기 부대 소속 핼리팩스 조종사로서 살아간 그의 삶에 대한 이야기다. 문학사상. 1만5800원.

▶달콤한 복수 주식회사(요나스 요나손 지음, 임호경 옮김)=소설의 핵심 키워드는 '복수'다. 작가는 이웃과 갈등을 빚고 있는 친구에게 복수 계획을 짜주다가 이 작품을 착상하게 됐다고 한다. 복수가 지닌 창의적인 잠재력에 주목하면서, 복수 계획을 짜는 것이야말로 가장 효과적인 치유법이라고 말한다. 그리고 작품 안에서 온갖 기상천외한 방법이 동원되는 복수담을 풀어놓는다. 열린책들. 1만5800원.

▶일일일시(一日一詩)(김종태 지음)=한시를 하루에 한 편씩 1년을 읽고 접할 수 있도록 선별해 번역하고 시에 적절한 그림을 선정해 해설한 책이다. 계절 순서에 맞게 하루 1편의 한시가 소개되어 있는 점, 한나라 때부터 청나라 시대까지 내용과 형식에 있어 다양한 한시가 소개되어 있는 점, 시에 밀접하고 어울리는 그림이 많이 수록된 점 등이 특징이다. 고반. 상,하 각 3만8000원. 오은지기자 ejoh@ihalla.com

'끝'의 동행을 안다면 삶의 선택 달라진다

임경희의 '그림책으로 배우는 삶과 죽음'

상실과 애도, 회복의 과정 '죽음교육' 꺼리지 말아야

아이는 모든 '끝'이 궁금하다. 낮은 왜 끝나는지, 바람이 그치면 어디로 가는지, 파도는 모래에 부서지면 그것이 끝인지 묻는다. 끝없는 아이의 질문에 엄마는 이런 말로 다독인다. 낮은 끝나지 않는다고, 이곳에서 밤이 시작되면 다른 곳에서 해가 빛나기 시작한다고, 세상 모든 것은 언젠가 끝나는 듯 보이지만 그 끝은 어디론가 새롭게 이어진다고. 샬럿 졸로토가 글을 쓴 그림책 '바람이 멈출 때'는 우리 눈앞에서 사라지는 존재들이 어디에선가 새로운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을지 모른다며 '순환'이라는 키워드를 떠올리게 한다. 어쩌면 '끝'에도 '다음'이 있다는 사실을 부단히 발견하는 과정이 우리 삶 그 자체인지 모른다.

'바람이 멈출 때'는 임경희의 '그림책으로 배우는 삶과 죽음'에 소개된 책 중 하나다. 초등학교 교사인 저자는 30년 넘게 아이들과 만나며 그림책으로 죽음에 관한 생각을 나누었고 그 사례들을 '그림책으로 배우는 삶과 죽음'에 기록해 놓았다.

죽음에 빈번하게 노출되어 있는 현대사회에서 상실이라는 경험은 어린이에게도 예외가 아니다. 반려동물, 반려식물의 죽음을 겪기도 하고 조부모, 부모, 친구, 형제자매의 죽음이 찾아오기도 한다. 그때 느끼는 충격, 두려움, 비탄 등을 제때 충분히 어루만져 주어야 한다. 죽음에 관한 막연한 공포나 두려움을 다른 관점으로 볼 수 있도록 안내하는 교육이 필요한 이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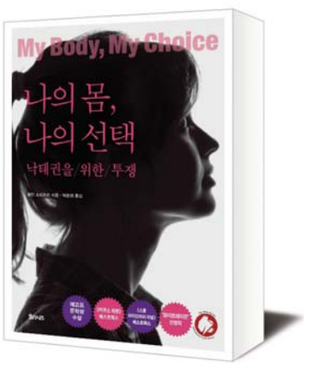
미국은 특정 학년을 정해 두지 않고 어린이에서 노인에 이르기까지 평생교육 차원에서 죽음교육이 실시된다. 의료진, 호스피스 종사자처럼 죽음에 관련한 전문 교육을 받아야 하는 직업군에 교사도 포함되어 있다. 독일에서는 '죽음준비교육'이 교육 과정 중 한 과목으로 정해졌다. 죽음, 자살, 인간답게 죽는다는 게 무엇인지, 생명의 가치 등을 다룬 교재도 다양하다.

죽음에 대해 말하길 꺼리는 우리 사회에서 죽음을 이해하고 삶을 통찰하는 그림책 읽기를 이어온 저자는 "죽음이 동행한다는 사실을 떠올리면 삶에서 좀 더 나은 선택을 하고 싶어진다"며 "죽음이 무엇인지 나름대로 정의를 내리다 보면 어떤 삶이 의미 있는 것인지 동시에 생각해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부록으로 그림책 수업에서 행해진 질문과 답변, 죽음교육에 쓰이는 도서 목록을 덧붙였다. 학교도서관저널. 1만7000원.

진선희기자 sunny@ihalla.com

안전하지 못한 낙태로 사망, 그것이 문제다

로빈 스티븐슨의 '나의 몸, 나의 선택'



캐나다에서는 전체 임신의 40%가 계획에 없던 것으로, 절반은 끝까지 임신 상태를 유지하지만 나머지 반은 임신을 종결한다고 했다. 미국에서는 해마다 약 100만 명이 낙태하는데, 이 중 12%가 10대다. 낙태를 선택하는 데는 여러 이유가 있다. 아이를 키울 여력이 없거나 다른 아이들을 돌보고 있어서, 아니면 그냥 아이를 원치 않아서다. 연령과 종교, 국적, 믿음이 어떻든 이 모두에게는 공통점이 있다. 임신했지만 임신을 지속하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임신과 출산이 여성의 몸에서 시작되지만 그에 대한 담론에 정작 여성의 몸은 빠져 있었다. 그래서 지난 50년간 세계 각지에서 안전하고 합법적인 낙태를 보장받는 세상을 위해 투쟁해왔다. 이 과정에 반대가 극심했고 때로는 폭력이 벌어졌다. 힘겹게 승리를 쟁취한 곳에서도 자기 몸에 대한 여성의 통제권은 여전히 위협받고 있다.

로빈 스티븐슨의 '나의 몸, 나의 선택'은 낙태할 수 있는 권리를 얻기 위해 싸워온 각국의 역사를 돌아보고 이를 바탕으로 펼쳐질 미래를 다룬 책이다. 내 몸에서 일어나는 모든 현상에 대한 결정은 나 스스로 내릴 수 있어야 한다는 인식 아래 낙태 경험자들의 목소리와 젊은 활동가들의 인터뷰를 더해 지난했던 싸움의 현장을 기록했다.

낙태는 흔한 의학 절차 중 하나지만 오명과 불행의 낙인으로 여겨진다. 미합중국 헌법을 채택할 때만 해도 미국은 낙태와 피임을 허용했다. 유럽인들이 아프리카를 식민지화하기 전까지 아프리카에서 낙태는 개인이 결정할 사적인 문제였다. 하지만 낙태가 '죄'인 오늘날엔 그 같은 경험을 아무렇지 않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드물다.

"낙태 자체는 논쟁 대상이 아니다"라는 국제여성건강연합의 프랑스와즈 지라드는 "낙태가 논란이 되는 이유는 오로지 안전하지 못한 낙태로 사망하거나 상해를 입는다는 사실을 무시하고 이 문제를 다루지 않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는 "이건 수치스러운 일이다. 논쟁해야 할 문제는 바로 이것이다"라고 일갈했다. 박윤정 옮김. 율리시즈. 1만5000원. 진선희기자

이 책 제주 출신 박시백 만화 '친일파 열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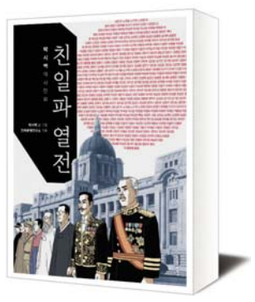
"터무니없는 친일파 위상 바로잡아야"

특별부록 '친일인물약력'에 실린 친일파들. 우리에게 너무도 익숙한 이름들을 볼 수 있다.

1945년 거짓말처럼 해방이 찾아왔고 일제에 저항했던 독립운동가들은 석방됐다. 미군정이 시작되면서 일장기가 걸려 있던 총독부 건물엔 성조기가 휘날리게 되지만 달라진 게 없었다. 세상이 끝난 줄 알고 숨죽였던 각계의 친일파들은 하나둘 밖으로 나왔다. 갖가지 정치 구호가 난립하는 세상 속에 친일파들은 변화된 세상의 공기를 정확히 읽어냈다. 그들은 친미 반공으로 옷을 갈아입고 무시못할 세력으로 되살아났다.

이런 가운데 숱한 정치적 격변을 거친 뒤 남한만의 단독 선거로 출범한 제헌 국회는 민족적 여망에 부응해 반민족행위처벌법을 제정하고 반민특위를 구성한다. 하지만 이에 반대하는 이승만의 담화가 다섯 차례 이어지는 등 반민특위는 급속히 위축되며 5개월 남짓 활동한 채 역사의 무대에서 퇴장했다. 두려울 것이 없어진 친일파들은 이후 처벌은커녕 우리 사회의 주류가 되었다.

7권 '35년' 중 친일파 이야기 어떻게 세 불리고 부 쌓았나 "사상적·혈연적 후예들 건재"



역사교사들이 선정한 '가장 좋아하는 만화가'에 꼽힌 제주 출신 박시백의 '친일파 열전'은 이 같은 '친일의 역사'로 시작된다. 앞서 2020년에 일제 강점의 역사를 담은 '35년'을 전 7권으로 완간했던 그가 그중에서 친일파들 이야기만 따로 모아 펴낸 '친일파 열전'은 "각 분야의 친일파들을 널리 알려 그들이 우리 현대사에 자리하고 있는 터무니없는 위상을 바로잡는 것이 친일 청산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 생각"해 민족문제연구소의 제안을 받아들여 제작한 역사만화다.

이 책엔 강화도조약부터 해방 직후까지 친일파들의 형성과 활동에 대한 역사를 간략히 다룬 뒤 시기별, 부문별 대표적인 친일파가 소개됐다. 친일파의 탄생에 이어 이들이 어떻게 세를 불리고 부를 쌓아왔는지, 해방 이후 어떻게 그 죗값을 피해갔는지 추적했다. '친일인명사전'에 수록된 4389명 중 특히 주목할 필요가 있는 150여 명의 친일파를 가려내 행적을 공개했고 특별부록으로 '친일인물약력'을 실었다. 우리에게 너무도 익숙한 이름들이 그 안에 있다. 저자는 "그들은 생물학적 수명을 다해 사라졌지만, 그 혈연적·사상적 후예들은 여전히 건재하다"고 했다. 비아북. 1만6000원. 진선희기자

승 축 진
CONGRATULATIONS
서 기 관

양 필 성

서기관 승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앞날에 무궁한 발전과
더 큰 영광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재제주시협재리향우회 회원일동

수 축 상
CONGRATULATIONS
농림축산식품부장관표창

고 봉 주
(제주시농협 조합장)

농림축산식품부장관표창 수상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앞날에 무궁한 발전과
더 큰 영광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제주시농협 임원일동

합 축 격
CONGRATULATIONS
제56회 공인회계사 시험

고 정 빈
제주대학교 전산통계학과 졸업
(부 : 고만호 · 모 : 양숙희)

제56회 공인회계사 시험 합격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앞날에 무궁한 발전과
더 큰 영광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외 가 가 족 일 동

승 축 진
CONGRATULATIONS
서 기 관

오 창 석

서기관(인재개발원 사회교육과장) 승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앞날에 무궁한 발전과
더 큰 영광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형 제 일 동